

# 여수서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 열린다

## 7개 도시 제치고 유치...내년 10월 개최

세계 박람회 성공적으로 치른 여수시가 내년 10월 열리는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여수시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터키 가지안텝에서 열린 '제7회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의 참가자들이 내년 행사 개최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헝가리의 헤비즈(Heviz)시 등 7개 도시를 따돌리고 여수시가 행사 개최지로 결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은 지난 2006년 9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실크로드 지역간 경제협력과 관광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첫 번째 모임을 가진데 이어 중국·이란·러시아 등에서 행사를 열었다.

올해 열린 제7회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은 세계 30개국 125개 도시 시장과 관련 기관, 단체 대표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9일부터 개최됐다.

시에 따르면 제8회 실크로드 시장

단 포럼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가 여수시를 비롯해 당초 4개 도시로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8개 도시로 전해지면서 어느 도시도 유치를 장담할 수 없는 치열한 상황이었다.

또 최근 발생한 공무원 거액 횡령 사건과 맞물려 시민단체 등에서 '외유성 해외출장'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김충석 시장이 출장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지난 8일 출국해 얻어낸 성과가 더욱 값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수시는 '제8차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 유치 성공 요인으로 우선 박람회 성공적으로 치른 김충석 시장이 직접 참석해 잘 갖춰진 SOC(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인프라 구축으로 '세계 4대 미항'(美港)임을 홍보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은 것을 꼽았다.

특히 여수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해상 실크로드 중심 도시임을 부각시키며 오는 2020년까지 국제 해양관광 레저스포츠 수도건설이라는 비전을



김충석 여수시장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내년 열리는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 개최지로 확정된후 포럼 깃발을 전달받아 흔들고 있다. <여수시 제공>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2014년 개최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클럽 제10차 연차총회에 이어 이번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 유치까지 연이은 국제 행사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제 사회에서 날로 높아지고 있는 여수의 위상이 재확인됐다"며 "국제 해양관광레저스포츠 교육문화수도 건설도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확인된 세계적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 그리고 잘 갖춰진 SOC와 고급 숙박시설, 컨벤션 시설을 활용해 국내외 연수, 세미나, 각종 체육대회는 물론 국제대회와 마이스(MICE)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전행 정력을 쏟을 계획이다.

/여수=임문택기자 mtim@

# 전남도 황칠 대한민국 대표 명품 육성

## 제품 개발 이어 광주에 전문매장 1호점 개설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의 황칠명품육성RIS사업단이 황칠을 대한민국 대표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품 개발에 이어 판로 개척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황칠나무는 장흥, 해남, 완도 등 전남 남해안 40여 농가 1400ha에서 재배, 전국 대비 99% 차지하는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남의 약용자원이다. 인삼과 가시오가피와 같은 파낙스(Panax) 계열의 상록활엽수로 '나무

인삼'이라고도 불린다.

황칠 명품화 육성사업은 지난해 지역경제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원료 생산, 품질 관리, 제품화, 시장관리 등을 통해 황칠 소재의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식품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황칠명품화육성 RIS사업단은 지난 9일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자체 전문관매점 '황칠전문매장 1호점'을 개설했

다. 또 황칠의 대중화를 위해 전국에 50개 매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앞서 표준화된 고품질 황칠 원료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황칠나무 생산자 연합회를 구축했고, 황칠의 기능성 규명으로 장 질환 치료·남성 성기능 개선·정신 안정 활성항제 조 등 3개의 특허를 확보했다. 또 피엔케이(PNK), 고려황칠 등 9개 기업에 제품 개발 등 14개 지원을 해 황칠·음료·황칠차 등 14개 제품을 출시하는 성과도 거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안군 천일염팀 프로기사 다면기

신안군 바둑팀인 '천일염팀' 프로기사들이 최근 열린 '제17회 LG배 세계기왕전' 이벤트행사로 지도 다면기를 갖고 있다. 이번 다면기에는 이상훈 8단(감독)을 비롯해 박승현 7단, 백홍석 9단, 한상훈 6단, 이호범 3단, 변상일 2단이 참여했다. <신안군 제공>

# 서울 국제식품 산업전 전남쌀 인기몰이

## 45억원 규모 납품계약 수도권 학교급식 판촉

전남쌀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국제식품 산업전(FoodWeek 2012)에서 수도권 소비자와 바이어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11일 전남도와 농업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합평농협 쌀법인과 무안농협 쌀법인이 총 45억원 규모의 전남쌀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합평농협 쌀법인은 수도권 식재 납품업체인 명천과 농협유통 등에 20억원, 무안농협 쌀법인은 인터넷판매 전문업체인 성현물산과 창동유통 등에 25억원의 전남쌀을 납품하기로 했다.

또 고흥 향양농협은 수도권학교급식 관계자를 초청해 만남의 장을 가졌다.



김수공(사진 중앙) 농업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과 전남도, 전남농협 관계자들이 전남쌀 판촉을 다짐하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이번 박람회는 9년 연속 전국 12대 우수브랜드 최다 선정된 전남 쌀의 브랜드파워를 강화하고, 전남쌀의 수도권 학교급식 등 안정적인 소비처 발굴에 중점을 뒀다.

전남도와 농업 전남지역본부는

행사기간 중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전남쌀에 대한 품질, 인지도, 개선 사항 등을 적극 모니터링해 고품질·친환경 전남쌀의 생산과 판매, 전남쌀 산업 발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전남도 내년 146억 투입 위험도로 19곳 구조개선

전남도가 도로 굴곡이 심하거나 급경사 등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도로에 대한 선형 개량과 우회도로 개설에 모두 14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1일 교통사고 빈발 등 위험도로 177곳 가운데 내년에 19곳에 대해 공사에 들어가는 등 연차적으로 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가 관리중인 위험도로는 298곳이며 이 가운데 121곳은 722억원을 들여 이미 개선했거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특히 차량 중심의 도로 환경에서 탈피, 농기계, 자전거, 보행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도 등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차량 감속 유도시설, 표지판 설치 등 도로교통 안전 개선사업에도 128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진도군 6년 연속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 내년 지산면 정비 등 사업비 118억원 확보

진도군이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년 연속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11일 진도군에 따르면 2013년 신규사업으로 지산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에 70억원, 오일시 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에 4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6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그동안 군은 2007년 소포권역 마을 종합정비사업(50억원)과 남동 전원마을 조성사업(20억원)을 비롯해 2008년 죽림권역 마을 종합정비사업(50억원)에 선정된 바 있다.

이어 2009년 동녘마루 권역 마을 종합 정비사업(50억원), 2010년 임회면 소재지, 둔지권역 종합정비사업

(120억원), 2011년도 조도면 소재지, 금골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110억원)에도 각각 선정됐다.

군은 현재까지 ▲농촌종합개발사업 6건 288억원 ▲면소재지 개발사업 3건 210억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1건 20억원 등 총 51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군은 2014년에 의신면 문필권역과 지산면 보전권역, 군내면 소재지 및 명량지구 전원마을을 대상지구를 공모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이동진 군수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인프라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바다·내수면 불법어업

### 전남도 23일까지 단속

전남도는 도내 바다와 호수 등에서 성행하는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12일부터 23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도내 시군과 함께 불법어업 단속반 2개반을 편성, 해역 및 내수면 불법어업, 유해물질 사용 양식업자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편다.

본격적인 생산을 앞둔 김 양식업장은 무기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공급처와 운반 경로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예방적 단속을 펼 계획이다.

내수면은 섬진강, 영산강, 영암호, 고천암호 등지에서 불법 조업하는 무허가 그물이나 통발어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제25회 광주광역시 복음화대성회 1500교회 40만 성도

#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 거듭남·성결 스통·화해·생명·나눔

### 2012.11.13(화)~14(수) 오후 6:30

## 염주종합체육관

2012 광주광역시복음화대성회 대회장 윤세관 목사  
2012 광주광역시복음화대성회 대표준비위원장 김유수 목사

광주광역시 동구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이상복 목사

광주광역시 서구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김정식 목사

광주광역시 남구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박상태 목사

광주광역시 북구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이상덕 목사

광주광역시 광산구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유희수 목사

주최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주관 제25회 광주광역시 복음화대성회 준비위원회

후원 CBS광주방송, CTS광주방송, 광주극동방송, 미션21, 기독교호남신문, 기독교타임스, 광주성시화운동본부, 광주장로교단협의회, 초교파장로연합회, 광주기독교단체연합회